

에콰도르, IMF의 대기성 차관 도입

□ IMF의 대기성 차관 205백만 달러 도입

- 지난 3월 24일 IMF는 에콰도르에 대해 205백만 달러의 대기성 차관을 승인함.
- 에콰도르는 이중 41백만 달러를 즉시 인출할 수 있으며, 세계은행, 미주개발은행 등 국제기구로부터 추가로 3억 달러를 지원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.
- 이번 IMF의 신규자금 지원으로 에콰도르의 공공부채 상환불능 위험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다소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됨.
- 그러나, IMF가 요구하는 개혁정책의 이행은 집권여당은 물론 야당의 반대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.
- 이는 집권당인 PSP는 물론, 주요 지지세력인 인디안 단체와 좌파 정당 등이 반발하고 있고, 야당도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임.
- 한편, IMF의 대기성차관 협정은 에콰도르의 2003년 거시경제 목표를 경제성장률 3.5~4.0%, 인플레이션 6~8%, 금융비용을 제외한 기초재정수지 흑자 14억 달러(GDP의 5.4%)로 설정하고 있음.
- 또한, IMF는 국영은행 청산, 동결예금 해제,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, 관세, 세제, 공공부문 개혁 등을 요구하고 있음.

□ 공공부채 문제는 당분간 계속될 듯

- 에콰도르는 1999년 8월 브래디 본드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한 이후 경제위기를 겪었으나, 2000년 4월 달러공용화 제도의 도입으로 위기를 극복한 바 있음.
- 그러나 달러공용화 제도 도입 이후 정부재정 부문은 더욱 취약해짐. 특히, 지난해 전임 노보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공공부문 임금을 인상하고 경제개혁정책 추진을 지연시키면서 정부재정 문제가 더욱 악화됨.
- 이에 따라 에콰도르 정부가 금년에 공공부채 상환불능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져 왔으며, 구띠에레스 대통령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취임 직후 긴축정책을 단행하는 한편, IMF의 신규자금 도입을 추진해 왔음.
- 구띠에레스 대통령은 2월 미국을 방문하여 IMF 켈러 총재, 부시 대통령과 차례로 회담을 가졌으며, 미국은 구띠에레스 대통령이 또 다른 우고 차베스 대통령(베네수엘라)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를 환대하는 한편, IMF의 신속한 지원을 주도함.
- 이에 따라 에콰도르 정부가 금년에 공공부채 상환불능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은 낮아졌으나, 달러공용화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, 경상수지 적자 지속, 이라크 전쟁 종결 이후의 국제유가 하락 가능성 등으로 이미 GDP의 60%에 이르고 있는 공공부채 문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임.

책임연구원 김영석(☎3779-6653)
E-mail : claudio@koreaexim.go.kr